

‘남원 춘향제’ 가치 재조명

시, 6개국 무형유산 전문가 참여 ‘국제포럼’ 개최

남원시는 판소리(춘향가), 농악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무형유산을 보유한 전통 예향 도시로, 96회를 앞둔 춘향제 역시 100여 년 가까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대표적 시민 축제에 대해 세계 무형유산 분야를 이끄는 6개국 무형유산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춘향제’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원 춘향제 국제포럼-가시성’의 시작지대, 유네스코 무형유산 모범사례 재조명’을 주제로 남원시가 주최하고, CICS 무형문화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남원 춘향제 국제포럼을 4월 30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하며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으로 기획, 유네스코 본부 관계자들과 세계적인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포럼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권덕철 춘향제전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 원장, 유네스

코 본부의 오히나타 후미코(Fumiko Ohinata) 무형유산분과 총 책임자, 임돈희 동국대 중신 석좌교수(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황권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장, 유영대 전 국립국악원장, 한경구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전 서울대 교수)이 참석한다.

주제 발표는 국립목포대학교 박정석 교수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지현 팀장이 좌장을 맡고,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의 세계적 권위자인 영국의 자넷 블레이크(Janet Blake) 페르시아 유산 연구소장, 국제 무형유산 자문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인 벨기에 안트베르펜 대학교의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교수, 전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의장인 에밀리오 바베이도스 박물관의 알리산드라 커민스(Alessandra Cummins) 관장 등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책과 국제 담론을 주도하는 글로벌 석학들이 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국가유산청의 나시리 사하(Nasri Shah), 일본 도쿄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이시무라 토모(Tomo Ishimura), 유네스코 인가 NGO 무형문화연구원원의 오세미나 등 아시아권 주요 실무 전문가들이 각국의 무형유산

보호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 주도의 축제 운영과 판소리 서사 기반의 공동체 활동, 기록과 교육의 결합 등 춘향제만의 실천적 노력이 무형유산 보호의 훌륭한 모범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포럼 중간에는 남원의 예술적 혼을 느낄 수 있는 특별 공연으로, 남원시 탐곡악단의 ‘판소리 춘향가’ 공연과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뮤지컬 ‘춘향-쑈대머리와 서리 역풍’ 공연이 펼쳐져 학술적 논의에 예술적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이밖에,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구 한국전통문화교육원장, 김지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팀장, 운동환 경상국립대 교수, 차보영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실장, 최규호 남원시 화에서, 한승미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모범사례의 발굴과 확산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로써 남원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무형유산 보호 실천 사례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모범사례 등재의 주변을 넓히기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건강하고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

체계적 산림자원 관리 나선다

순창군, 숲가꾸기사업 추진

순창군이 건강하고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조림 이후 숲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산불 예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순창군 일원 473ha 규모로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총 12억 5천여 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조림지 내 풀베기 작업과 어린나무 생육 환경 개선 슈아베기 및 산불 수집 등 단계별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사

할과 문화재 공공시설 산책로 주변 등 산불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산림의 건강성 유지와 함께 안전한 산림 이용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은 대동산 일원 유류산림자원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군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녹색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산책로 조성과 수목 식재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무장이나농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산림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춘향제 연계 ‘농특산품 축제’ 개최

남원시, 월궁광장 일원서 운영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와 연계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2026 남원시 농특산품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30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월궁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지역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판매·체험·공연이 어우러진 참여형



남원시, 월궁광장 일원서 운영

축제로 운영된다.

행사장에는 직거래 장터가 조성되어 지역 농가와 업체가 직접 생산한 우수 농특산품을 선보인다.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해 일반 판매부스와 컨테이너 부스를 조화롭게 배치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 존을 별도로 구성해 즐길 거리를 더했다. 청소년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 행사를 통해 축제의 활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한루원 및 요천변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춘향제에는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농특산품 판매, 플라멩코,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춘향제 기간 ‘건강체험관’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제96회 춘향제 기간인 30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요천로 차 없는 거리 일원에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체험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체험형 건강 프로그램과 유익한 보건사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체험관에는 보건소 11개 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감염병 예방, 금연·절주, 치매 관리, 정신건강 등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보건 분야를 시민들이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기획했다.

특히 5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은 AI 건강측정기인 ‘카르나(KARNA)’



남원시보건소, 춘향제 기간 ‘건강체험관’ 운영

남원시, 춘향제 문화누리카드 임시가맹점 운영

남원시가 제96회 남원 춘향제 기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임시가맹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축제의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제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관한루원 및 요천변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춘향제에는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농특산품 판매, 플라멩코, 푸드 트럭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 이중 이용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108개 부스는 문화누리카드 임시가맹점으로 등록, 현장에서 별도 절차 없이 소지한 카드로 즉시 결제할 수 있다.

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춘향제를 찾는 모든 방문객이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가맹점 운영 및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가족센터, 천연공예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임실군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지역주민이 함께 천연 생활용품 만들고 나누며 이웃 간 따뜻한 소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천연공예 프로그램 ‘손끝공방’ 참여자를 오는 5월 8일까지 모집한다.

손끝공방은 이웃과 함께하는 천연공예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기에 걸쳐 임실군 가족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천연주방세제, 천연섬유 유연제, 수분크림, 크리스탈팜 눈꽃 캔들, 커피샴푸, 천연헤어컨디셔너, 디퓨저, 천연젤팩스, 바디워시, 수제비누 등 다양한 천연 생활용품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순창군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시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연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과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해당 안내문을 받고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은 군청 내 신고도움창구를 방문하면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경제회복 지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와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열람·이의신청 접수

임실군(군수 심민)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과 동시에 내달 29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총 1만62호이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외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